

꼼꼼한 가채점으로 성적 분석...수능 반영 유불리 잘 따져야

‘포스트 수능’ 이것만은 챙기자

정시 인원 증가·교차 지원 확대 등 변수 많아
입시전문 온라인 교육사이트 수시 모니터링
점수 낮으면 대학별 고사·높으면 정시 공략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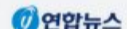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7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서석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수험생들로부터 전자기기를 회수하고 있다. <광주전남사진기자단>

2023학년도 대학입시 주요 일정

2022 11월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
	17-21일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12월	9일	수능성적 통지
	15일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
	16-19일	합격자 등록
	26일	미등록충원 합격 통보 마감
	27일	미등록충원 등록 마감
	29일	정시모집 원서접수 시작
2023 1월	2일	원서접수 마감
	5-12일	가군 전형기간
	13-20일	나군 전형기간
	25-2월 1일	다군 전형기간
2월	6일	합격자 발표
	7-9일	합격자 등록
	16일	미등록충원 합격 통보 마감
	17일	미등록충원 등록 마감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7일 끝나면서 대학 입시가 본격화됐다.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은 이날 공개된 수능 영역별 정답을 확인, 가채점을 통해 자신의 성적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광주·전남지역 현장 교사와 수도권 입시 전문가들은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한 뒤, 최상의 대입 지원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적에 따라 수시 논술·면접 고사에 응할 것인지, 정시에 집중할 것인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채점·영역별 예상등급 확인 필수=전문가들은 수능 가채점 결과가 향후 수능 지원전략을 수립·이행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된다고 입을 모은다.

다음 달 9일 수능 성적이 통지되기 전까지는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입시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조해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 정시 지원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가채점 결과가 기대보다 낮다면 남은 수시모집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수능 다음날인 18일 숭실대 논술을 시작으로 다음 달 12일까지 주요 대학들의 논술·면접 등 대학별고사가 진행된다.

중로학원에 따르면 면접을 실시하는 서울권 대학 수시모집 전형 선발인원의 68.9%, 논술을 실시하는 전형 선발인원의 85.1%가 수능 이후에 대학별고사를 치른다. 지원하는 대학들의 대학별고사 날짜와 시간을 확인해 일정이 중복되지 않는지 살피고 평가에 대비해야 한다.

가채점 결과로 정시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수시지원 대학보다 상위권 대학이라고 판단되면 대학별고사를 포기하고 정시모집에 집중하는 지원 전략을 짤 수도 있다. 다만 2023학년도 정시는 수험생 수 감소와 주요대학 정시 선발인원 증가, 이과의 문과 교차지원 등 어느 때보다 변수가 많다.

특히 이번 수능은 졸업생과 경정고시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31.1%로 26년 만에 가장 높았는데, 이번 정시모집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입시 전문가들은 “올해 재수생과 반수생이 많아 등급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수시모집에서 상향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다. 수시에 집중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수능 반영 유·불리 따져 정시 준비=주요 대학 대부분이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본인의 수능 성적이 수시 지원 대학의

의 기준을 충족시키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우선 가채점 분석을 통해 예상 최고점과 최저점을 확인하고, 해당 구간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 및 학과를 군별 5개 이상 찾아야 한다. 이때 정시 지원이 가능한 대학일지라도 적성에 맞지 않거나, 합격해도 꾸준한 공부할 의사가 없는 모집단위는 미리 제외하는 것이 좋다.

각 대학을 비롯한 올해 정시 관련 입시자료를 수집해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각 대학 입학처 사이트에 게재된 ‘전년도 정시 입시결과’에는 학과별 합격자의 평균 수능 성적과 경쟁률, 충원을 등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어 합격선을 가능하게 데 도움이 된다.

작년 모집요강과 올해 모집요강을 꼼꼼하게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 전년도 대비 올해 영역별 반영비율, 모집인원, 선발군 이동 등 핵심 변화사항을 파

악해야 한다. 큰 변동이 없다면 과거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안정적으로 지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면 올해 정시 지원 및 결과에 끼칠 영향까지도 함께 예측할 수 있다. 수많은 대학과 학과를 두고서 단 1점이라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인 원서접수를 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자료를 참고해 정시 지원 포트폴리오의 밑거름을 만들어야 한다.

정시모집 지원 전략을 짰다면 마지막으로 원서접수 마감 일자와 시간 등 세부 사항을 체크해야 한다. 자칫 잘못된 날짜나 시간 등으로 인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정시 원서접수는 대학별로 일정이 달라 자칫 다양한 변수들이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포스트 수능’ 시기는 들뜨더라도 두드려 봐야 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영어, 수시전형 최저학력기준 변수 될 듯”

광주교육청 분석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수능에서 영어가 수시전형 수능 최저학력기준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절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변별력을 갖춘 문항들이 출제됐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수능문항 분석팀은 17일 “국어와 수학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쉽거나 비슷하게 출제돼 최상위권에서 변별력이 떨어질 것”이라면서 “영어에서는 수험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빈칸추론 유형 문항들이 대부분 어렵게 출제됐다”고 진단했다.

국어영역은 지난해 수능에 비해 쉬웠던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적인 출제 경향은 6월·9월 모의평가와 같았다.

고난도 문항이 지난해 수능에 비해 줄었으며 지난해부터 도입된 국어영역 선택과목인 화법과 작

문, 언어와 매체는 평이하게 출제됐다.

공통과목 ‘독서’의 경우 독서, 인문, 사회, 과학 영역에서 출제됐고, 지난 6월, 9월 모의평가와 같이 4개 지문 17문항으로 출제됐다.

독서영역은 정보의 양이 많지 않았으며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 추론해야 할 내용들이 지난해 보다 적었다.

‘클라이버의 기초 대사량 연구’ ‘법령에서의 불확정 개념’ 등 과학과 사회 지문이 제시되는 등 고난도 문제가 있었지만 문항 수가 적었으며 문항의 경우 EBS교재와 연계 출제됐다.

수학영역은 다수의 문항이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하게 출제됐다. 다만 도형의 해석, 함수의 유추 등 공통영역의 난이도가 높았으며 풀이과정도 전체적으로 늘어나 시간 관리 여부에 따라 결과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하 과목의 경우 제시된 도형이 투박하게 표현돼

수험생들이 오류를 의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어영역의 EBS연계율은 사전에 예고한대로 50% 이하를 유지했다. 6월·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소재를 활용한 간접연계로 문항이 출제됐다.

하지만 수험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빈칸추론 유형 문항들이 대부분 어렵게 출제됐다. 33번 문항은 오답 선택지가 많아 수험생들이 정답을 고르는데 어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진단됐다.

글의 순서를 묻는 문항인 37번도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어렵게 느껴졌을 것으로 분석됐다. 문단(B)와(C)의 시작 부분의 소재가 유사하고(A)의 연결사를 글의 마지막 부분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 수능문항 분석팀은 “전체적으로 시간에 쫓길만한 상황에 수험생의 입장에서 쉽지 않은 시험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예년 기조 유지...선택과목 유불리 최소화”

출제위원장 박윤봉 충남대 교수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장인 박윤봉(사진) 충남대 교수는 올해 수능에서 예년 출제기조를 유지했으며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현상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수능 출제 방향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학교에서 얼마나 충실히 학습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고교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자 했다”며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함으로써 고교 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2차례 시행된 모의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예년 출제기조를 유지하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선택과목이 있는 영역에서는 과목별 난이도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출제해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국어, 수학 같은 경우 선택과목을 어떤 과목을 택하느냐에 따라 유불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고, 사실 이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올해 시행됐던 6월, 9월 모의평가 결과를 파악해서 올해 수험생 집단의 수준을 가능하고, 그것에 맞춰 가능한 과목 간 평균과 평균 원점수, 표준점수 차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출제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11월 선착순 30분에 한하여
이장비 지원해드립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수목장*자연장
전문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 주말, 공휴일도 24시간 상담가능 〉

062) 464 - 9190